**연중 제11주일(2018년 6월 17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제가 한국에서 신학생이었을때,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이 미국분이셨습니다. 미국 위스컨신 그린베이 출신이셨고, 60년대 초에 20대의 나이로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신부님이셨어요. 영문 이름이 로버트였는데, 로버트에서 ‘노’자를 따고, 숭늉과 커피에서 한글자씩 따서, 한국 이름이 노숭피 신부님이었어요. 지금은 이미 팔십이 넘으셨고, 한국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셨고, 또 제가 미국에 오게 되었을때, 그 신부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평생 일하고 나니까, 그 결실로 자기가 키운 제자가 자기 나라에서 활동하게 된 거라고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얼마나 좋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신부님이 사제관에서 새벽이나 밤 늦게 늘 풋볼을 보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린베이 팩커스 풋볼 팀을 좋아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린베이에 그 신부님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신부님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의 조카들과 친척들이 그린베이에서 산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갔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분들이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몇 십년이 지나서, 한국 사회는 몰라보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톨릭 교회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더이상 외국인 선교사가 파견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국 신부님 수녀님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가톨릭 신앙은 가장 믿을 만한 종교이고, 가장 믿고 싶은 종교라고 한국인의 여론 조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신 많은 선교사 신부님들의 헌신적인 삶을 돌아보면,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커다란 나무로 성장했는지, 하느님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 대한 두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땅에 뿌려 놓은 씨가 알게 모르게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면,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 이야기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싹트고 자라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란 예수라는 이름의 목수 청년이, 당시 로마 제국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가난한 떠돌이 설교가가 전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삶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느님 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알게 모르게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가운데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하느님 나라는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하느님 나라를 꽃피우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 하나가, 그리고, 나눔의 실천 하나 하나가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실현하는 작은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행동 하나 하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작은 사랑의 마음씨, 작은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내는 작은 헌금 한 푼 한 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됩니다.

얼마전에 신문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준 한 어머니의 이야기.

한 미친 청년이 도시 한 복판에서 대낮에 총을 들고 나타나서 마구 쏘아 댑니다. 그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20대 중반의 한 청년이, 외아들이었는데, 대학을 막 졸업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었던 한 청년이 그 총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괴로움 속에서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자를 한 번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묻고 따져보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서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고나서 겨우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그 살인자도 자기 죽은 아들과 비슷한 또래 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대화도 없었고, 얼굴도 서로 쳐다 볼 수도 없었는데, 이 어머니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러다가 수 개월이 지나서, 그 살인자가 서서히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살인자는 어려서 부터 부모에게서 많은 학대와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어났다는 둥, 때리고, 성적인 학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어느날 가지고 있던 총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거리고 나와서 총을 휘둘러 댄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연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는 이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청년도 알고 보면 누구로 부터의 희생자였던 거죠. 그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면회가 끝나고 헤어질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살인자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어머니는 그 살인자의 새로운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그 살인자는 외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새 아들이 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 놀라운 이야기 입니다.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용서한 것에 비하면 내가 한 용서는 그냥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이런 용서의 마음과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바로 지금 여기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 구름 저편에 있는 막연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 서로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어렵고 힘들어 하는 형제 자매들 있으면 좀 챙겨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잘났다고 욕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들고 웬수 같은 사람이라도 좀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주고, 상처주고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마음 따뜻하게 사는 바로 거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때, 하느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멋지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